

## 노란 은행잎 물드는 11월, 문학과 역사의 숨결 '이균영'을 찾아

'문학적 자서전'에 남은 '젊은 작가 한강이 보내 준 《여수의 사랑》을 읽으며' 대목도 눈길

광양향교 명륜당 옆에 곧게 서 있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드는 11월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평생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이상문학상과 단재학술상을 모두 수상하며 문단과 사학계에 깊은 반향을 일으킨 광양 출신 소설가이자 사학자인 이균영이다.

1951년 광양읍 우산리에서 태어난 이균영은 광양중학교, 경북고, 한양대 사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공부한 뒤 동덕여대 교수로 재직했다.

1977년 단편소설 『바람과 도시』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고, 1984년에는 『어두운 기억의 저편』으로 제8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확고한 위치를 굳혔다.

1993년 발표한 『신간회연구』는 방대한 사료를 토대로 좌·우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신간회의 실체를 규명한 최초의 연구서로 평가받으며 단재학술상을 안겼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양 진영이 결성한 항일단체인 신간회는 일제강점기를 분단의 기원으로 인식한 이균영이 꾸준히 탐구해 온 주제로, 출간 직후

서사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역사를 "사람들의 역사이자 개인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의 과정"으로 보았고, 이러한 시선은 그의 연구와 소설 전반에 일관되게 흐른다.

소설 『어두운 기억의 저편』에서 분단의 어두운 단면을 그려낸 점이나 『신간회연구』에서 인물들의 개성을 생생하게 되살린 면모는, 그가 문학과 역사를 넘나들며 이룬 깊은 통섭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균영은 광양군지 편찬에 참여하는 한편, 광양 백운산을 배경으로 근현대사를 다룬 열 권 분량의 대하소설을 구상하며 수년간 자료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민족적 삶을 살았던 역사의 인물들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만나기 위해 두렵고 초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혼자 저 문학의 길을 향해 가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막 출발점에 섰던 마흔다섯의 그는 1996년 11월 21일 새벽,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타계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남겼다.



그가 남긴 소설집 『바람과 도시』, 『멀리 있는 빛』, 장편소설 『노자와 장자의 나라』 등에는 유당공원, 광양장도 등 광양의 풍경과 숨결이 진하게 배어 있다.

또한 그의 문학적 자서전에 실린 "젊은 소설가 한강이 보내준 『여수의 사랑』을 읽으며 돌아본 여수 바닷가의 25년 전 초등학교는 그대로였다"는 대목에서는,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과의 일찍부터 이어진 특별한 인연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짧은 생애를 기억하는 이들은 해마다 11월 21일, 생가 인근 우산공원 내 '이균영 문학동산'을 찾아 그를 기린다.

이곳에는 이상문학상 수상작 『어두

운 기억의 저편』을 책 형태로 형상화한 조형물과 문학비가 소박하게 조성되어 있다.

그가 어린 시절 뛰놀던 우산공원, 은행잎이 수북이 쌓인 광양향교, 담쟁이가 생가 담장을 가득 감싸안은 작은 골목 또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는 공간들이다.

이현주 관광과장은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11월, 광양의 햇살이 키운 소설가이자 사학자인 이균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문학동산과 생가, 광양향교 등을 걸으며 그의 문학과 역사 정신을 기리고 걸어가는 가을 감수성도 충분히 충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 순천에서 '고삼'과 '유산'이 만난다

정유재란에서 근대 기독교 역사까지, 특별한 하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수능 이후 고3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순천문화유산탐방'을 오는 28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순천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선과 근대유산을 잇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탐방은 조선시대 정유재란의 흔적부터 근대 기독교 역사의 발자취까지, 순천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따라가는 하루 일정을 구성된다.

관내 1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10개 학급 약 200여 명의 신청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학생들은 오전에 해설사와 함께 유적의 역사적 배경을 배우는 정유재란 역사체험학습장 또는 기독교역사박물관을 탐방하고, 오후에는 또래 간 교류와 스포츠 해소를 위해 어울림체육관에서 공연, FM 라디오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미니게임 등을 체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험생활을 마친 청소년들이 잠시 쉬엄 쉬엄 순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지역의 자긍심을 느끼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 고흥군, 2025년 책 내리는 크리스마스 수강생 모집

고흥군립도서관, 모두가 함께하는 겨울 특별프로그램 운영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12월 2일부터 6일까지 고흥군립도서관에서 '2025 책 내리는 크리스마스' 특별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강좌는 관내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상'과 '동심'이 살아 숨 쉬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도서관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겨울의 온기'를 주제로, 자료실에서는 '크리스마스' 관련 도서를 전시해 이용자들에게 겨울철 독서를 제안하고,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3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된다. 중앙도서관(고흥읍)에서는 ▲유자 뽕쇼·샐러드 만들기 ▲과자집 만들기 ▲우드 오너먼트 ▲홀리데이 네일 클래스 등 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남부도서관(도양읍)에서는 ▲성탄 염사·볼펜 ▲성탄 캔들 외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북부도서관(동강면)에서는 ▲나만의 케이크 ▲생화 만들기 총 11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이며, 프로그램 신청은 고흥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175명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운영된다.

군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추운 겨울날 이색적이고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흥미를 높이고, 크리스마스 관련 주제 도서 전시와 자료실 이용으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고흥군 문화체육과 도서관운영팀 ☎061-830-6951)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고흥/박도일 기자

## 대한민국 끝과 끝, 전라남도 진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의 합동 교류의 장!

토요상설공연 '국악이 좋다' 22일 국립남도국악원,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를 선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은 1999년 창단하여 전통의 재해석과 창작활동을 통해 강원도의 대표적 국악 연주 단체이다.

전통음악의 원형은 물론 다양한 방식의 창작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 개발로 전통의 동시대성을 회복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비롯해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한국음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 <합동교류연주회>는 국립남

도국악원 국악연주단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이 함께한 국악관현악 공연이다.

특히, 이번 공연을 위한 초연곡으로 진도를 주제로 한 국악관현악 <빛나는 섬>, 민요 모음곡 <육자배기-동백타령-노랫가락-매화타령-뱃노래>, 국악관현악 <美!樂!(Miracle)>로 무대를 꾸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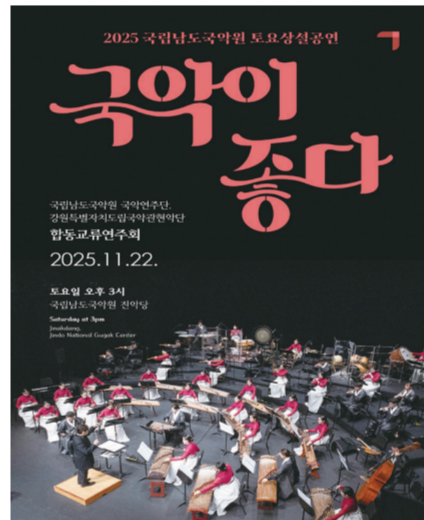
서로 다른 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모니로 관객들도 모두 하나 될 수 있는 공

연을 준비했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읍사 무소와 국악원, 장동문화센터(고군면 오일시)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여 참여 한 관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또는 전화(061-540-4042, 장악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립남도국악원은 올해 상반기 공연장 공사를 마치고 지난 7월부터 공연



장을 재개관하여 다양한 장르의 국악 공연을 선보이며, 국악으로 행복한 열린 문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광고문의 TEL 062-525-9775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보다나온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농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